사공일 전 장관, '세계경제의 맥을 짚다'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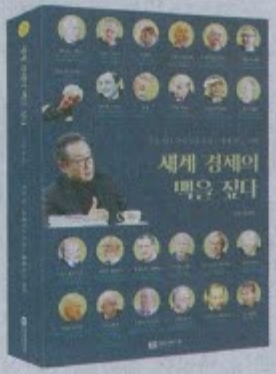
세계경제 수장·석학 24명과의 대담집 펴내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79·전 재무장관)이 신간 <세계경제의 맥을 짚다>를 냈다고 세계경제연구원이 지난 11일 밝혔다.

이 책은 사공 명예이사장이 26차례에 걸쳐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장, 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BOJ) 총재 등과 대담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다.

대담자로는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마틴 펠트스타인 전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의장, 하워드 데이비스 전 영국 금융위원장, 자크 아탈리 전 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 마리오 몬티 전 이탈리아 총리(유럽연합 집행위원), 스티븐 로치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지역 회장,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 기 소르망 파리정치학교 교수,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 커밋 숀홀츠 전 시티그룹 글로벌수석이코노미스트 등도 포함돼 있다.

사공일 명예이사장



대담에는 세계경제의 현안과 전망뿐 아니라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제의 최우선 정책과제, 한국경제의 미래, 나아가 창업과 기업가정신,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개혁, 노동시장과 고령화·여성문제, 부와 소득의 불평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미국과 중국의 위상과 전략 변화에 따른 세계질서의 불안정까지 종횡무진 넘나드는 주제에 걸쳐 방대한 대담을 가졌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1993년 세계경제연구원을 설립한 사공 명예이사장은 1983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과 1987년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